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가. 개요

- 대주제: 위기상황에서의 정부회계의 역할
- 일 시: 2021. 4. 23.(금) 13:00~18:30
- 장 소: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1동(113호)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현장 참석이 가능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주 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 후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감사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라운드테이블]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부문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사 회] 최원석(서울시립대)

[토 론] 조창상(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김이배(덕성여대 교수)

조종래(감사연구원 연구부장)

한소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조연주(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총괄이사)

[국가회계네트워크 세션]

[사 회] 조광희(동국대)

[발표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이정희, 서울시립대)

[토 론] 정호용(국민대)

[발표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성시경, 단국대)

[토 론] 송민섭(서강대)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라운드테이블]

• 주요 토론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부문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창상 국고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 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국고보조금 신속 지원, ②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개선, ③ 보조사업자 현황 등의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변환하여 개방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 ④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관리강화 추진이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용자, 출자금 등의 집행 관리도 고려할 계획이며,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부처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컨설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영철 코로나 시대는 세대·지역·계층 간 격차 확대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통합성이 주요 이슈가 되어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역할(범위, 역량) 증대는 과거 큰 정부의 회귀가 아닌 민간의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행정학적인 공동 생산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재원을 조세 또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 및 합의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원가 비교 정보만 공개되어도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정보회계학회는 결산서상 예산의 지속적인 잉여금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재정관리, 의사결정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이배 ‘숫자를 통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하위 내역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IMD)는 과거 경험상 외형적인 충격 없이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기업회계 중심의 국가회계 투명성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종래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유 업무인 회계감사와 결산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재정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충하고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려면 다른 조직·분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재정부문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학회, 국민 등과 지속 소통하여 계속 열린 마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소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을 World Bank 및 OECD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도 향후 다양한 과제 수행할 예정이다. 첫째, Wor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수준 높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예산적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예산서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챕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재정 영향에 대해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B/S접근방식(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것)에 기반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관리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여 별도의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보증 및 용자에 대한 보고주기를 월간으로 조정하고 수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보 전달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보증, 용자를 장기재정전망의 위험요소로 측정하며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도 향후 ① 국가결산분석보고서 개발, ② 국가재무보고 개선 과제, ③ 국유재산의 가치평가, 예산정보와 결산정보의 연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금흐름 분석 강화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연주 비영리회계부문에도 주기적 지정제 등을 통한 감사 강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익법인 전문감사인제도를 제안할 예정으로 양성제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럽의 ‘public interest entities’ 개념에 착안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영리부문 표준감사기간을 비영리부문에도 적용하자는 공인회계사법을 발의 중에 있다.

[국가회계네트워크세션]

• 주요 발표 내용

발표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이정희, 서울시립대)

코로나19 시대의 확대재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규모의 정부재정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GDP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주요 사업집행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채무제한, 총지출 제한, 페이그제도의 순서로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열린재정정보시스템 확대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 세입감소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통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발표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성시경, 단국대)

재정관리에 있어서 성과정보 및 결산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교육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① 예산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도와의 상관관계, ② 예산집행률과 다음 연도 예산 증액/감액과의 상관관계, ③ 성과목표달성도와 다음 연도 예산의 증액/감액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부 일반재정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정보와 회계정보, 예산 간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 주요 토론 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정호용, 국민대)

첫째, 세대 간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해외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므로 향후 한정된 재원에 대한 재정지출의 방향을 설정(집중적으로 활용할 분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이자지급 규모보다는 차환 여부, 외환시장 안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송민섭, 서강대)

성과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회계정보를 input으로 하여 input과 output을 연계하려는 것인지 접근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선정 이슈인지 실행의 이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2021. 4. 23.),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1동(113호)